

서울시, ‘동행파트너’ 지원 강화

침수 재해약자 인명피해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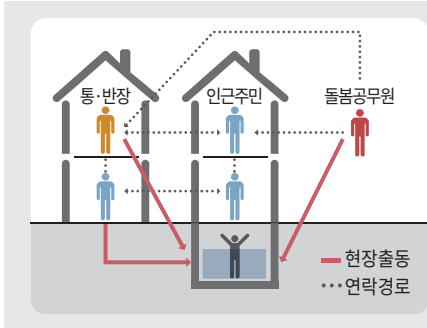
동행파트너 수당 올려 참여율↑
우의·장화·장갑 보호장구 제공
대피동선 등 맞춤 재해지도 제작

서울시가 침수 재해약자를 돕는 동행파트너의 출동 수당을 올리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동행파트너의 능동적 참여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동행파트너 서비스는 이상폭우시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거주민의 빠른 대피를 지원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가 마련한 것이다. 재해약자 가구당 5인 내외로 동행파트너를 매칭해 지원한다.

동행파트너는 인근 주민, 통·반장, 돌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중 반지하 주택 거주자, 만 65세 이상 세대주 중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 만 16세 이하 세대원 중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다.

시는 작년 시범 사업을 벌이며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 954가구를 선정(장애인 328가구, 어르신 491가구, 아동 135가구)하고, 통·반장 등 인근 주민 1685명, 돌봄공무원 706명을 포함 총 2391명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해 운영



동행파트너 운영 개요

재해약자 가구수	954가구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 노인, 아동)
인원구성	총 2391명 가구당 5인 내외 (인근주민+통반장+돌봄공무원)
기본임무	예보시 재해약자 가구 방문 경보시 신속대피 지원
연락체계	돌봄공무원 주관 단체 카톡방 구성

자료/서울시

했다.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해 재해 취약가구에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피를 안내하고 침수방지시설 상태 확인 등으로 침수위기 상황에서 재해 약자를 보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침수예보가 발령된 ▲6월 8일 밤 11시 ▲7월 11일 오후 3시 ▲7월 26일 밤 8시 ▲7월 30일 오후 6시 총 4회 동행파트너를 운영했다.

시는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야간 및 휴일 침수예보시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출동률이 미흡했다고 보고 문제점을 보완, 올해 동행파트너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동행파트너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출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보호 장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침수예보가 발령됐을 때 주민이 출동하면 기본수당으로 4만6000원을 주는 것은 동일하나, 출동 시간이 밤 10시 이후 야간이거나 휴일인 경우 기본수

당의 1.5배인 6만9000원을 지급한다. 안전한 현장 출동을 위해 우의·장화·장갑 등 보호장구도 제공한다.

동행파트너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네거점을 시범 도입하고, 맞춤형 재해지도도 만든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빈집, 경로당 등을 동네거점으로 조성해 수방 전진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동행파트너와 재해약자를 위한 맞춤형 재해지도도 제작한다. 재해약자의 거주지와 대피 동선, 비상시 행동 요령, 권역별 비상연락망 등이 표현된 리플릿 형태로 재해지도를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동행파트너의 역량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존에 일부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교육을 전체 25개구로 확대한다. 시는 우기 전인 4~5월 온라인(SNS) 훈련과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구글, AI분야 차세대 리더 육성

‘AI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운영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참가 혜택

서울시와 구글이 차세대 스타트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구글과 AI 분야의 초기·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내달 5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숙명여자대학교 눈꽃광장홀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기업가정신 워크숍 ▲전략적인 제품 스토리텔링 ▲성공을 위한 리더십 원칙 ▲구글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AI 및 클라우드 톨 소개 ▲혁신적인 AI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대화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여자에게는 향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토크 시리즈, 스피커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다양한 창업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제품·전문성·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다. 서울에는 지난 2015년,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설립됐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2022년 말까지 130개 이상의 스타트업 지원, 7059억원의 누적 투자유치, 3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시는 덧붙였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AI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한 세션당 최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필요한 세션만 신청해 맞춤형으로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교육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나 인터넷주소(<https://google.com/ai-ss-seoul-about>)로 접속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통학버스 ‘파프리카’ 타고 등교해요”

운정신도시 18개 중·고등학교 있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노선도 확정

파주시가 경기 최초로 추진하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명칭이 파프리카로 확정됐다.

파프리카는 지난 12월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063건 중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우수 공모작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파프리카’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정학교와 학교 주변 일정 범위의 거리를 오가는 기존의 통학버스와 달리 운정신도시 전 지역, 18개 중·고등학교를 모두 잇는 파주형 통학순환버스는 ‘파프리카’라는 명칭 속에 담긴

의미처럼 학생들이 모두 함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다.

이와 함께 시는 ‘파프리카’의 노선도 확정지었다. 작년 말 노선 초안이 공개된 이후 ‘파프리카’ 학생 수요가 있는 해오름마을, 별하람마을을 초기 운행 노선에 포함시켜 운행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통학순환버스를 도입한 선례가 없는 않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로는 전국에서 파주가 처음이다. 경기도 내 일부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벤치마킹을 타진해오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3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AI기술로 고립 위험가구 안부 확인

1인가구 휴대폰 사용량 등 모니터링
위험상황 조기 발견, 사고 예방 목표

서울시가 고립 위험이 높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량과 앱 이용 이력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사전에 감지, 빠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문이나 전화를 불편해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로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똑똑안부확인, AI안부든든, 1인가구 안부살핌 등의 안부확인

서비스 3종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AI 시스템을 통해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나 간혹 전화 수신을 거부하거나 간섭으로 느끼는 가구가 있어 안부확인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똑똑안부확인’은 핸드폰 사용량, 걸음수를 측정하는 앱과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문열림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 휴대전화와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핸드폰 사용량이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자동 전화가 발신되며, 응답이 없을시 담당자가 직접 전화·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AI안부든든’과 ‘1인가구 안부살핌’은 휴대전화 데이터와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가정 내 추가기기 설치 없이 원격검침계량기(AMI)를 이용해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이 감지되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한다. 특히 ‘AI안부든든’의 경우 휴대폰 충전·잠금장치 등 사용 이력도 자동으로 조사해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전화 통화로 소통하는 AI안부확인 서비스를 비롯해 이번에 추가되는 3종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민 수요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설연휴 서울 내 학교 주차장·운동장 개방

연휴기간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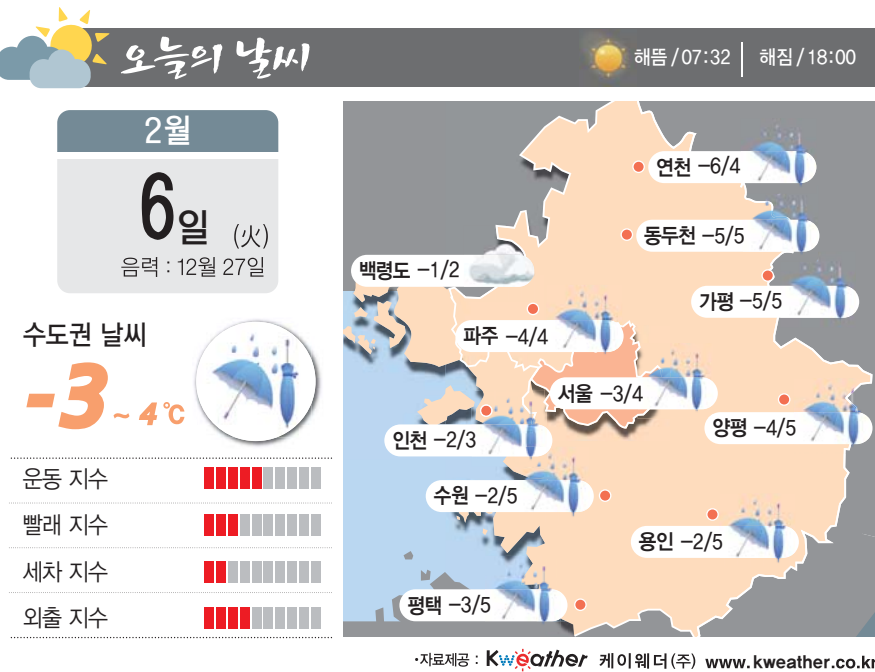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를 맞아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이달 9~12일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

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시내 공·사립 학교 총 201곳이다. 대상 학교 명단과 주차시설 개방 시

확인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주차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치구 협조 및 경찰서 순찰 강화 요청 등을 통해 연휴기간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칠레 산불 사망자 99명으로 늘어... ‘국가 애도의 날’ 선포 /사진 뉴시스
▲파월 “몇달 내 금리인하 없어...인플레이션 2% 기다리진 않아”

▲주중대사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변화없어...대만과 실질협력”
▲中, 2035년 엑스포 유치 전략?...오사카에 최대규모 해외관 착공



▲미국, 사흘연속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 공습
▲中, 증시 안정 위해 1850조원 규모 안정자금 필요 /사진 뉴시스